동구 불법선거·총인비리 등 광주 주요 사건

대형로펌이 싹쓸이

태평양·김&장 등 서울 법무법인 수임
포화상태 지역 변호사업계 경쟁 치열

광주지역에 최근 동구 불법선거사건,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비리사건, 대형 유통업체 관련 의무휴무일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서울에 자리한 대규모 법무법인이나 거물급 변호사들이 광주를 찾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까지 진출하면서 포화상태에 있는 지역 법조계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서울 유명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은 건당 1억원이 넘는 짭짤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25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에이원·이룸, 김&장 법률사무소 등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대형 사건 수임이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지역 변호사들에 비해 5~10배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이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내놓은 성적표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직 동장의 투신사건으로 불거진 동구 불법선거와 관련 유태명 동구청장의 경우 1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서울지역 전관 출신 변호사 등을 선임했으나 결과적으로 법정구속되면서 태평양 등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관련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에이원·이룸 등은 물론 지역 전관 출신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 밖에도 광주 5개 자치구와 목포시·여수시 등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진행중인 대형 마트 3사도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의뢰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이 지자체의 처분을 집행정지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주체인 (주)한재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26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업체와 남구청·인근 주민 등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들 의뢰인들이 지역 변호사들을 외면하고 건당 수임료가 억대인 이들 서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배경에는 ▲대형 법무법인의 탄탄한 법원 내 인적 네트워크 ▲변론 노하우 ▲심리적 안정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변호사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변호사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선호가 결국 법조계의 뿌리 깊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나 전관 출신에게 맡겨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일반 변호사가 실패하면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의뢰인의 속성"이라며 "여러 사건을 맡고 서울을 오가며 피고인을 변호해야하는 서울 변호사들이 얼마나 사건을 제대로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무려 296명에 이르고 있으나 주요 사건 의뢰인들이 서울지역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을 선임하면서 지역 변호사 업계의 수임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유흥비 구하러… 겁없는 10대女

채팅男에 수면제 탄 술 먹여 금품 훔친 2인조 덜미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인 일명 '펀톡'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10대 여성 2인조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가출을 일삼다 알게돼 함께 살고있는 김모(19·광주시 북구 두암동)·강모(18)양.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하자 쉽게 돈을 벌 방법을 물색했다. 그때 마침 김양은 평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하곤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수면제를 먹이면 짧은 시간에 잠이 들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고 돈을 훔치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범행 대상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펀톡만 하면 남성들은 줄을 이었다. '2대 2 즐겁게 만날 사람, 콜~'하면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응해왔다. 먹잇감(?)을 잠재울 수면제는 김양이 어머니 것을 몰래 빼내 마련했다.

지난 7일 김양 등은 채팅 끝에 차를 몰고 찾아온 조모(25)씨를 따라 전주까지 원정에 나섰다. 김양 등은 조씨 원룸에서 2대2 미팅을 했다. 기회를 엿본던 김양은 새벽 2시께 수면제 가루를 술잔에 넣어 남성들이 마시게 한 후, 잠든 사이 현금과 시계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탄 수면제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생명도 빼앗을 정도로 위험하다"며 "이들이 향정신의약품을 술에 타 심신을 미약하게 한 후 금품을 훔쳤기 때문에 형법 제334조에 따라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한 점 등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상 인명구조 모의훈련 수상 인명구조 요원들이 25일 광주시 서구 염주실내수영장에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는 오는 2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법 강사강습을 진행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순신대교 투신 30대 구조

25일 새벽 3시10분께 광양시와 여수시를 잇는 이순신 대교에서 방모(32·광양시)씨가 70m아래 바다로 뛰어내렸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 순찰정에 구조됐다.

방씨는 다리 위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여자 친구 김모씨(36)와 장래 문제로 대화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바다에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불황일수록 더 난립하는 게임장

광주경찰, 게임물 유통 75억 부당이익 30대 둘 검거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서민들의 '한탕 심리'를 자극하는 불법 게임장 개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게임 제공업으로 정식허가를 받고 환전이나 불법 개·변조 등을 은밀하게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지만 매년 단속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5일 전국적 공급망을 통해 불법게임물을 유통 시킨 안모(33)씨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 한 건물 사무실에서 불법 개·변조한 게임물 소프트웨어를 전국 55개 게임장에 2500개를 공급해 7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게임물을 개발해 등급심의를 거친 뒤, 다시 투입금액의 20배까지 배당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행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불법 개·변조된 게임물을 공급받아 영업을 한 광주지역 게임장 5곳을 단속 또는 폐업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업주 최모(40)씨 등 8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이들 게임장은 관할구청에 합법적 사업장으로 등록한 뒤 속칭 바지사장, 환전상, 망보는 사람 등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게임물은 전국의 성인게임장에 공급된 불법게임물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급 책임자를 추적하는 한편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자금추적을 통한 실제 업주 파악, 조폭 관련 사항, 경찰관과의 유착비리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25일 현재 불법게임장 단속 건수는 367건에 달해 지난 2010년(255건)·2011년(345건)의 단속건수를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게임장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한데다 대부분 명의상 업주가 처벌을 받고 있어 근절이 어렵다"며 "갈수록 방법을 진화해가면서 게임장을 운영해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증도서 무인도 체험 학생 둘 실종

무인도 체험 학습을 위해 신안군의 섬을 찾은 경남 김해 모 중·고등학생 2명이 물놀이 중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48분께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리 해섬 앞 바다에서 무인도 체험을 온 경남 김해의 모 중·고등학교 중학생 김모(3년)과 고등학생 박모(2년)군이다.

프로그램 진행 여행사 인솔자 이모씨는 "물놀이를 하던 중 두 학생이 물에 들어간지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 중고등학생 66명은 3박 4일 무인도 체험을 위해 신안군 증도를 찾았고, 24일 오후 1시께 병풍도에서 1.8㎞떨어진 무인도 해섬으로 왔다.

목포해경은 경비정 3척과 헬기, 자율구조대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펴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함평천 30대女 숨진 채 발견

24일 오후 6시40분께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 한 다리 밑 수면에 A(여·31)씨가 엎드린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다리 위에서 발을 헛디뎠거나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함평천 해당 구간의 수심은 2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DNA 때문에 50일전 성폭행 들통

쌍나팔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경찰의 DNA 조사결과 50여 일 전 저질렀던 강도강간사건의 피의자로 다시 법정에 설 운명.

○…2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장모(23)씨는 지난 6월2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동구의 모 원룸에 침입, 잠자던 A(여·20)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 7명을 용의선상에 올린 뒤 그 중 1명인 장씨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자 혐의를 추가했으며 여죄가 있는 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입학문의 ▶ 062-605-1114
www.kwangshin.ac.kr
2013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수시 1차	수시 2차
인문	신학과	20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6
사범	유아교육과	9	7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6	4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20	-
총계		67	28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수시 1차모집
· 원서접수: 2012. 8. 20(월) ~ 9. 11(화)
· 전 형 일: 2012. 9. 20(목)
수시 2차모집
· 원서접수: 2012. 11. 12(월) ~ 16(금)
· 전 형 일: 2012. 11. 29(목)

■ 특별전형
· 전학과 :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 가정주부 전형

■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가족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만학도장학금 등 지급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입학문의 ▶ 062-605-1115
2012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교설립 58주년 (1954~2012)

【 일반전형 】
■ 주요일정
① 원서접수 : 2012. 8. 6(월) - 8. 20(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 형 일

대학원명	학과	필기 및 면접고사
일반대학원	신학연구과(M.A.T.)	2012. 8. 24(금) 오후 2:00
	장애유아통합교육학과(M.Ed.)	2012. 8. 24(금) 오후 2:00
신학대학원	신학과(M.Div.)	2012. 8. 24(금) 오후 2:00
교육대학원	교육학과(M.Ed.)	2012. 8. 24(금) 오후 2:00

③ 합격자발표 : 2012. 8. 28(화) 오후 2:00
④ 등 록 기 간 : 2012. 8. 29(수) - 31(금)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모집정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장애유아통합교육학과(M.Ed.)	-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유아특수,초등특수,상담	○

◀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